

건설업계 “설계금액 얼마 나올까” 촉각

원주~강릉 복선전철사업 6개 공구 총사업비 검토 완료

원주~강릉 복선전철사업의 나머지 6개 공구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가 완료돼 설계금액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원주~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6개 공구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마무리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했다.

총사업비의 검토금액은 요청금액 대비 5.5%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철도공단은 원주~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잔여분인 1~5공구와 11공구에 총 2조2,046억원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5.54%인 1,223억원이 감소한 2

조823억원으로 검토금액을 산출했다. 이는 자재값 및 유류값 오류 수정, 품셈 단가산출근거에 따른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집행한 원주~강릉 철도건설 1차분 5개 공구의 총사업비 절감률 7.4%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다.

철도시설공단은 연말 착공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금액 산출을 거쳐 조만간 공고를 낼 계획이다. 이에 따라 최종 산출할 설계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건설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.

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“철도시설공단이 예산절감 방침으로 설계금액을 검토금액에서 추가로 줄이고 있다”며 “이로 인해 적자 시공 등이 우려되는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
하위윤기자 faw4939@kwnews.co.kr

/ 삼척 가스폭발 사고 피해 복구 성금 기탁자 /

△재대구삼척시민회 100만원 △롯데칠성음료 10만원 △크라운제과 동해영업소 5만원 △오리온제과 5만원 △강원도민일보사 100만원 △동해삼척대백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 100만원 △서영건설 30만원 △부일막국수 200만원 △대한곡물협회 강원도지회 50만원 △동해해양경찰서 직원 일동 249만 5,000원 △강원신용보증재단 50만원 △삼척시축구연합회 200만원 △익명 500만원 △육군제2하사관학교 321동기회 30만원 △가곡면개발위원회 10만원 △민경범 5만원 △익명 1만원 △도계한빛유치원 13만 5,000원 △(주)대우건설 1,000만원 △강원발전연구원 100만원 △도계읍사무소 직원 일동 34만원 △교동주민센터 직원 일동 34만원 △원광어린이집 100만원 △우리문화 100만원 △삼척시한여농 20만원 △참빛도시가스 500만원 △유명호 삼척부시장 50만원 △삼척시 총무과 직원 일동 11만 5,000원 △참빛가스속초 200만원 △원당16통 노인회 20만원 △참빛영동가스 300만원 △태웅토건 20만원 △경신조경원 20만원 △원덕농협가곡지소장 5만원 △정도스님 1만원 △교동장년연합회 10만원 △교동새마을협의회 10만원 △교동통장 일동 30만원 △코오롱위케어에너지 삼척사업소 110만 1,000원 △서우건설 100만원 △삼척시여성예비군 30만원 △경동반점 10만원 △교동짬뽕 10만원 △대성원 10만원 △대승춘 10만원 △덕성루 10만원 △동보성 10만원 △동승춘 10만원 △만수장 10만원 △쌍용각 10만원 △오용각 10만원 △이화루 10만원 △두원건설 20만원 △용암건설 20만원 △가곡점물 10만원 △후진경로당 일동 10만원 △취도화엔지니어링 500만원 △삼척농협 임직원일동 200만원 △삼척농협주부대학 총동문회 일동 100만원 △취국 일건설엔지니어링 200만원 △쌍용자원개발㈜ 1,000만원 △강원도시장·군수협의회 500만원 △춘천시장 외 직원 일동 300만원 △교동택지상가 변영희 100만원 △낙원건설㈜ 500만원 △신기면 바르게살기위원회 10만원 △(합)신동산업 10만원 △민호기 1만원 △원덕읍 산양1리장 김신하 10만원 △원덕읍 산양1리 주민 일동 20만원 △원덕읍 산양2리 주민 일동 20만원 △성내동 29동 주민 일동 30만원 △성내동개발자문위원회 20만원 △동양네트웍스 500만원 (이상 남양동) △지용진 10만원 △강원농협농촌사랑회 300만원 △태백시통장협의회 100만원 △임소정 10만원 △동해삼척태백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 50만원 △한둘수 50만원 (이상 도계읍) △도계라이온스클럽 100만원.